

그들의 말로 듣게 하라

ARM

Audio Recordings Mission

ASSOCIATED WITH GOSPEL RECORDINGS

복 음 음 반 선 교 회

제2호 / 1996년 1월호

- 발행처 / 복음음반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송파구 오금동 94-3 성진 B/D
Tel 408-6959 Fax 430-4353
- 발행인 / 조관호(Barnabas)
- 편집인 / 정성준(David)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계 7:9)

복음음반선교회는 언어의 장벽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전도종족들에게 그들의 부족어로된 음반을 만들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목차 Contents

- 조이의 기쁨행진
- LRI 카세트 재생기
- 꿀씨들을 거닐하라
- 섬김과 개척
- 미전도 종족을 위한 음반 사역
- 중국의 목수들
- 스튜어트 밀 선교사
- 정 선교사 소식
- 한 녹음선교사의 일기
- 광고

FAITH BY HEARING

연단이 고될 때

1950년 우리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곳 섬들의 각기 다른 90개 언어를 녹음하려고 노력하였다(「그들의 말로 듣게 하라」 참조).
당시 녹음 장비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문제는 계속 되풀이 되었다.
우리는 장비를 수리해야 하는지 그냥 기도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사역을 철수하고 돌아가서 장비를 점검하고 작동이 되는지 살펴 보아야 했다.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자주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곤 하였다.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뜻대로 일하신다네...”

“연단, 연단, 연단!”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네...”

“연단, 연단, 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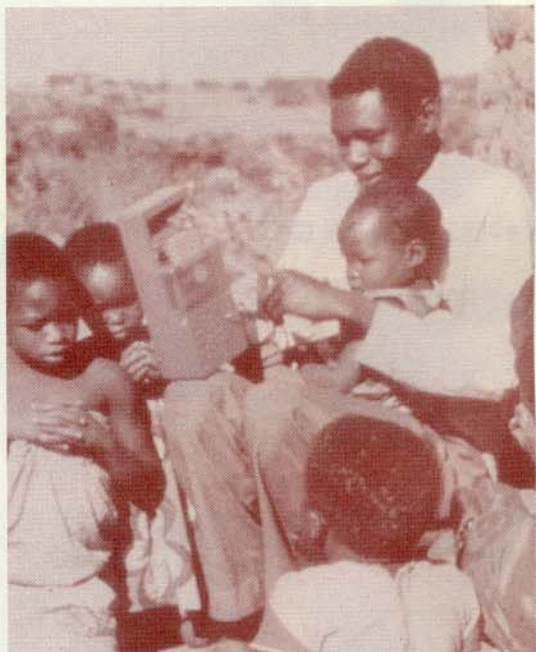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의지하는 것은...” 등등

성경 말씀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고후 4:17)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온갖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니!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온갖 시련은 우리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당시에는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시간이 늦춰지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는 것이 주님 임재에서도 훨씬 낮게 보였다. ‘이런 일이 뭐가 좋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기뻐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였다.

“우리는 Mountains Singing이라는 책을 읽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겪은 많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적어도 두 명이 우리 복음음반선교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 왔다. 해를 거듭하며 많은 편지들이 전하는 소식은 당시에 필리핀에서 제작한 음반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이 수백명에 이르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한 많은 어려움들로 하여금 헌신적인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두말할 나위없는 증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



조이 리더호프
Gospel Recordings
설립자

LRI 카세트 재생기

1939

년 조이 리더호프가 처음으로 스페인어로 복음음반을 만든 이래, 그 사역은 점차로 커져서 전기와 배터리를 전혀 구할 수 없는 오지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하는 상자”는 점점 무용지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아주 평범한 축음기라 할지라도, 미개한 부족에게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물건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계속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도 장애물이 되었다.

그래서 조이를 비롯한 GR사역자들은 아주 저렴하면서도 모터없이 손으로 돌려서 누구든지 작동할 수 있고 고장의 우려가 전혀 없는 축음기를 위해 기도했다.

이때 하나님은 뉴기니아로 가는 전도여행중 호주에서 스튜어트 밀을 만나게 하셨다.

스튜어트는 그 당시 솔로몬군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해 기도하던 중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받고 다음 단계의 행보를 기다리고 있었던 스튜어트에게 하나님은 이전에는 한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주시게 시작했다.

이리하여 호주지부가 시작되고 스튜어트는 자신의 공장 옥상을 호주지부 사무실로 내어놓고 어린이이라도 쉽게 작동할 수 있는 축음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계속적인 기도와 실험속에 1957년 전기없이 정확히 분당 78회 회전수를 가진 축음기를 탄생시켰다.



1. 카드토크(Cardtalk)

카세트가 나오기 이전 등근 레코드판을 사용할 때 개발된 축음기가 현재 지금도 세계곳곳 미전도 지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골판지에 그들의 말로 된 복음레코드판을 꼽고 나뭇가지로 구멍부분을 돌리면 소리가 난다.

그러나 이 레코드판은 깨어지기 쉽고 제작비가 높아서 카세트 테이프가 나온 이후에는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



2. 메신저(Messenger Cassette Player)

카세트가 발명되고 보급이 되면서 GR의 수동식 축음기도 카세트 형태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LRI의 기술팀들은 값이 싸면서도 견고한 수동식 카세트 음성재생기를 개발해서 <메신저>라 명명했고, 이를 더욱 개량하여 <메신저Ⅱ>를 생산하여 전세계로 배포하고 있다. <메신저Ⅱ>는 이전의 축음기를 더욱 개량한 형태로 Play/ Fast/ Forward/ Rewind/ Stop 기능까지 갖추고 6볼트의 PC아답터와 연결되어 사용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Volume기능을 통해 정확하고 멀리까지 들릴 수 있는 재생능력이 있어 수십명이 모인 곳의 회중들에게도 동시에 들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제복음음반선교회 Team은 이 재생기와 함께 각 방언으로 된 복음음반 카세트를 무료로 전세계 미전도종족에게 보급하고 있다. ✽

꿀씨들을 거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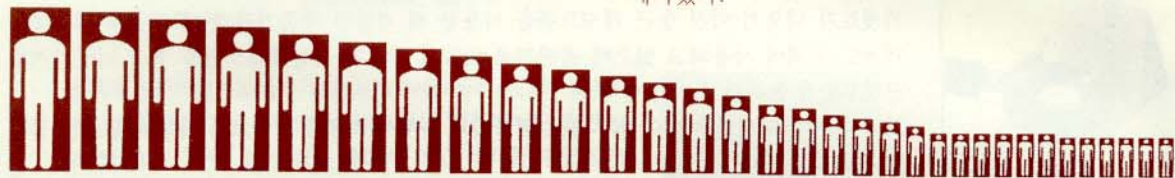
알란 스타링(Allan Starling)

- 기독교 21세기운동본부



나는 지난번에 콜린 스콧(Collin Scott)이 언급했던 “꿀씨” 개념이 국제 복음음반선교회(Global Recordings Network)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알기로는 GRN과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하계 언어학 연구원)이 이러한 소외된 종족들에게 다가가는데 아주 진지한 두 가지 주요한 매체 사역이다.

나는 달라스에 있는 SIL 국제본부에서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왔다. VNMD(Vernacular Nonprint Media Network : 토속어 비인쇄매체망—글자를 사용한 인쇄물 이외의 비디오, 필름, 카세트 등의 매체를 사용해 토속 문화에 접근하는 사역)와 PIN(People Information Network : 종족정보망)과 함께 토의를 한후에 우리는 “꿀씨”들의 필요에 우선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에 있는 토속어 매체 사역들과 모임을 개최할 것을 바란다. 전 GR간사이자 현재 SIL에서 사역하고 있는 마를린 말스트롬이 이 모임의 조직을 맡을 것을 제의했다.



US세계선교센터는 미국 전역에 “세계 기독교 운동에 대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과정이 있다. 그들은 때때로 그 과정에 강의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 제목은 “세계 복음화 전략”이다. 이 시간은 “꿀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Gospel Recordings(복음음반선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국제 기독교21세기 운동본부의 국제총무인 루이스 부시와 교류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GR이 그 조직을 돕고있는 21세기 운동본부의 Audio Communications Network(오디오 커뮤니케이션망)이 선교사들과 크리스찬 대중의 관심을 “꿀씨”들에게 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섬김과 개척

로스 레인지(Ross Lange)

- GR 조사&전략 책임자 -

지난 55년동안 GR은 교회와 전 세계의 선교단체를 섬겼다. 섬기는 선교단체로 알려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일은 개척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단체를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개척 사역을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했던 종족들은 GR을 처음으로 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종족집단 가운데 통역자나 거주 선교사가 있기도 전에 말이다.

그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큰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많은 개척 사역이 있다. 특히 복음을 거의 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수천개로 추산되는 모든 언어와 방언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한 것이다.

많은 단체들이 미전도 종족을 조사함에 있어서 "주요한 종족"을 거론하지만, 복음음반 선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는 그 어떤 "중요하지 않은 종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종족이 고귀한 것이다.

최근 내가 혼두라스에 있었을 때,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하던중 가장 많은 요청은 렌카(LENCA)라고 알려진 인디언 소수부족 언어에 대한 필요였다. 위클리프 선교회는 그들의 종족학 사전에서 그에 대해 "극소수의 언어사용자가 있고 거의 사어

가 되어 스페인어와 동시에 사용된다."라고 언급한다.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역에는 이 종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어떤 성경번역도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혼두라스 그리스도인들은 스페인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들 토속언어인 렌카 방언(아직 녹음이 되지 않았지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녹음사역자가 성경번역이나 선교사가 지원되는 곳에 복음음반물을 녹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곳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개척선교 사역이 멈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통역자나 선교사들이 부족해서 녹음이나 보급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가나의 셀레(Sele)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들에게는 선교단체나 교회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들이 6,000명이나 되에도 불구하고 성경번역을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

우리가 만일 미전도 종족들에게 개척선교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단지 선교사나 통역자가 이미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만 나아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네팔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개척사역을 모두 감축하고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만 사역자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미전도 종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미전도 종족들 사이에서 녹음사역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가장 절박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다른 종족에 비해 접근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감히 그들을 선교대상 목록에서 뺄 수는 없는 것이다. ❀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네팔 현지 어린이들

미전도종족을 위한 음반사역

왜 라디오, 비디오, 텔레비전, 필름이나 서적으로도 하지 않는가?
음반 매체는 많은 현대의 기술적 매체들중의 하나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피볼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선교의 과업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생명력있고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매체들이나 사역들이 서로 상호 보충하고 보완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음반매체가 수많은 유효한 접근방식중에 하나이며 독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말한다.

SECTION I 왜 음반사역을 하는가?

SECTION II 카세트 사용시 고려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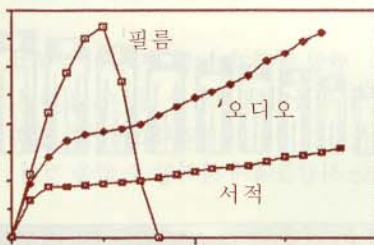
SECTION III 어떤 종류의 카세트가 사용되는가?

SECTION I 왜 음반사역을 하는가?

A. 다른 매체와 음반사역의 관계- 여러 매체에 대한 간단한 고찰

음반사역의 독특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매체와의 관련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종류의 미디어는 제각기 그 나름대로의 강점과 한계성을 갖고있다. 시각적 매체(텔레비전, 비디오, 영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높은 충격과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처음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후원이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후원이 즉시 음반사역으로 전환된다면, 복음의 낙오자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그림 1을 보라) 시각적 매체는 여기서는 거론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며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우리 복음음반선교사역이 접근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중족집단에게는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1〉각 매체의 충격과 영향력 비교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음반, 카세트, 녹음, 라디오 등의 오디오 매체에 국한하며, 성경, 전도지, 서적 등과 같은 문서류들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다.

1. 라디오 : 방송매체

라디오는 오디오 카세트를 사용하는 접근과 다른 점이 많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보통 매우 일반적이며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집단이나 규모가 큰 청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카세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한정적 방송(narrow-cast)” 접근이 아니라 “광역적 방송(broad-cast)” 접근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특별히 소수 집단에게 초점을 맞춘 경우이다.

라디오는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외딴 지역 에까지도 미칠 수 있다. 오디오 카세트처럼 선교사들이 미칠 수 없는 ‘단 허진’ 문을 넘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라디오는 카세트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단지 주요 언어와 방언으로만 만들어진다.
- 프로그램은 여러 시리즈로 연이 어져 있으며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는 않다.
- 메세지는 단지 한번만 방언되며 만일 청취자가 그것을 놓쳤을 경우 다른 시간에 다시 그것을 들을 기회가 없다.
- 더 많은 청취자를 위해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친다.
- 전달된 정보가 불명확할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일반적으로 비개인적이며, 유일한 접촉방법은 회신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시간적으로 지체되거나 우편서비스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라디오는 카세트의 사용과 결합할 때 그 효과가 증폭되지만, 현재 불행하게도 언어방송은 주요언어와 무역 언어로만 방송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Heart-Language(토속어)로

전파할 때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결과이다.

2. 레코드 음반 : 카세트의 이웃사촌?

그렇다. 레코드 음반은 여전히 세계선교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서, 간단하고 비용이 싼 CardTalk 수동식 음성재생기와 청취자의 토속어(Heart-Language)로 된 등근 레코드판 음반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메시지가 바뀌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레코드음반과 카세트는 여러가지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반복해서 듣기 용이하고 빌려줄 수도 있으며, 소수 언어에게 접근하기 쉬우며, '한정적 방송(narrow-cast)'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코드음반은 카세트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a] 제한된 재생분량으로 인해 내용/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실을 수 없다.
- [b] 더많은 인원과 자원이 필요한 더 복잡한 내용을 제작시, 더 많은 훈련이 요구된다.
- [c]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
- [d] 제한된 지역(산업화된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 [e] 생산과 수송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린다.
- [f] 녹음부터 현장에 레코드가 도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 [g] 레코드 재생기가 일반적이지 않고 선교사/토착민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 [h] CardTalk은 짧은 수명을 갖고 있다.(골판지로 만 들어져 있음)
- [i] 레코드는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

이로 보아 레코드는 카세트보다는 호환성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떨어지며 대중적이지 않음을 알수있다.

3. 문서 : 읽을 수 있다면 아주 요긴한 것

문서는 카세트와 비교해 볼 때 적어도 2가지 단점이 있다.

[a] 읽고 쓰는 능력에 완전히 의존한다 : 서적이나 전도지, 성경 등은 종족의 읽고 쓰는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 나라의 주요언어나 무역언어로 읽을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종족의 일부만이라도 문서를 읽고 쓰기까지는 오랜 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설사 읽을거리가 그들의 말로 만들어 진다 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결코 읽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며,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읽고 쓰는것은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비서구문화에서는 구어적 형태(Oral Form)의 의사소통

이 더 자연스럽고 지배적인 방법이다.

(b) 번역과정의 복잡성 : 문서로서의 번역과정은 매우 느리고 복잡하며, 때로는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반면에 카세트 번역과정은 훨씬 더 간단하다.

B. 카세트의 중요한 공헌

1. 그들의 말로 듣게한다.

카세트는 정상적으로는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특히 그들이 그들의 토착언어/방언으로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심겨져 개인적인 복음증거를 위한 길을 예비한다.

2. 개인적 복음 증거를 보완한다.

카세트는 목사나, 전도자이든지 아니면 크리스찬이 단 순히 이웃에게 증거하든지간에 이러한 개인적 복음 증거를 보완한다. 그것은 개인적 증거나 노방전도를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나 믿는자의 교육에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3. 사역을 배가한다.

이것은 특별히 목사나 전도자, 혹은 크리스찬이 거의 없는 지역에 특히 적용된다. 목사나 전도자는 카세트와 재생기를 일정 기간동안 마을에 남겨두고 난후, 다른 카세트를 가지고 다시 와서 이미 음반을 들은 양육대상자의 의문 사항을 풀어준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카세트를 듣고 구원을 받고 이런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간증을 들곤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며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를 행하신다. 그분을 찬양하라!

4. 현대 기술을 사용한다.

세계복음화의 과제는 만만찮은 일이며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뜻과 그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현대 기술 매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오디오 카세트 매체는 이러한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어떤 매체 사역도 인내심과 끈질진 기도가 지원되고 사역자가 성령에 의해 사용될 때만이 전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중국의 목수들

아래의 이야기는 최근 중국으로 취록모험을 떠난 네팔 녹음팀의 보고이다.

“그 목수들은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명이 며칠 동안 한밤중에 떠나 계속 믿는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새벽녘에야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한 정원사가 물었다고 한다.

중국의 탄압과 감시하는 눈들, 특히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깊게 사색해야 했다. 호기심 많은 정원사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지 몰랐다. 집안에서 우리는 미전도 소수 부족을 위한 복음 메시지를 녹음하고 있었다. 모슬렘들 사이에 신중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여행 일정을 짰던 사람과 언어준비를 도와준 분들이 간단히 주의사항을 말해 주었다. - 언제나 중국계 옷을 입어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하지마라. 호텔방에 서조차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호텔방에 성경이나 어떤 사역장비도 두지마라. 중국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음

합하라. 미행당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 버스를 타고 출발직전에 다시 내려서 따라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라. 하나님과 당신의 여행을 돕는 자 외에는 결코 아무도 믿지 마라.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충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우리는 불안감을

느꼈고 때로는 크리스찬의 생명력에 까지도 스며드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놀라운 담대함을 보았다. 중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 :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와 지하교회.

삼자교회는 강제로 최대출석인원이 정해져있는 등 여러가지 제제속에 있다. 지하교회는 그와는 또다른



많은 소수부족은 토속어로 된 성경도 없고 토착교회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고유언어로 복음을 담은 카세트를 만들려는 이유이다.

10/40 창문지역

시험이 있다. 크리스찬이 되면 정부로부터 모든 이권을 박탈당한다.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사라지고 거주지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활동과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를 당한다. 이렇게 변절한(?) 사람들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는데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보장이 없다. 감옥속의 잔학행위는 일반 방송매체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쉬지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들은 놀라운 교회성장과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다수부족에 속한다. 많은 소수부족은 토속어로 된 성경도 없고 토착교회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고유언어로 복음을 담은 카세트를 만들려는 이유이다.

중국어와 소수부족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조력인들이 8개 언어로 복음을 하는 계획 일정을 썼다. 이들 중 2명이 최근에 집요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우리는 5개 언어로는 복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편집한 후에 컴퓨터로 목소리를 바꾸어 여러 종족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사한다.

특히 한 통역자는 기도응답의 좋은 본보기이다. 우리가 도착하기 한 달전에 그녀는 우리가 지역하려고 했던 지역에 40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녀는 자기 종족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관해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 듣고 그녀가 우리를 돕기로 자청했던 것이다. 거의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일해온 통역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킵박이 있는 나라에서의 사역하는 것에 대한 문제 외에도 음식을 구하는 일에도 우리는 흥미있고도 때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거의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호텔에서조차도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가장 처음 깨달은 어려움은 식사 문제였다. 매뉴얼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고, 웨이터들은 전혀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파안대소를 하고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집시를 가져왔다. 우리가 선택한 음식은 한번도 맛보지 않은 것이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정말 낯선 것이었다.

우리는 중국인들처럼 버스과 기차를 타고 사역지를 여행했으며 그곳의

풍경을 즐겼다. 북부의 아름다운 사막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실은 기차는 바위 투성이의 지역을 지나 끝없는 터널속으로도 달려서, 평평한 논이 주위로 솟아오른 산들이 있는 남부에 다다랐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녹음 사역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자. 그리고 중국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자. 또한 녹음된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또다른 여행?

녹음전도여행의 스케줄을 짰던 통역자가 내년초 또다른 여행을 요청했다. 이 여행과 더 많은 새로운 녹음대본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신빈안전을 위해 녹음사역자들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튜어트 밀

83살의 젊은 선교사

“저는 1953년에
호주LRI와 연결되어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상태이지요.
그 말은
제가 더이상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하루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속화할 수 있는나 하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일을 하느라
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Hand-heli Generator생산을
위해 헌신한 (주)제이오-텍을 방문
왼쪽으로부터 김진억 사장, 스튜어트
밀, 조관호 집사(ARM대표)



선교 여행을 위해 전세계 순방길에
나선 스튜어트 밀이 지난 10월 1일부
터 7일까지 한국 ARM을 방문했다.
83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
한 열정과 미전도 종족에 대한 끝없
는 사랑은 오히려 젊은이보다 더 생
명력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뉴질랜드 태생으로 젊은 시절
솔로몬 군도의 선교사로 수년간을 사
역했었다.

부득이한 가정 문제로 호주에 돌아
와 있던 그는 아내와 함께 사업을 하
고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가야한다는 주님의 소명은
결코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솔로몬 군도로 돌아가려는 시
도를 했지만 예기치 않던 가정문제가
또다시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그러한 공백기간동안 사역의 빈자
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 맡게 되었고
스튜어트의 가정은 시드니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뉴기니아로 가는
조이 리더호프를 만났을 때 그는 하
나님께서 어쩌면 이전에는 한번도 꿈
조차도 꾀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의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각 태평양군도와 흩어져 있는 부족
들을 위한 그들의 말로 된 복음음반!

스튜어트의 마음은 어느덧 솔로몬
군도의 야자수가 늘어진 해변으로 옮
아갔다. 복음음반을 실은 선박이 외
딤섬의 감춰진 마을들로 음반을 나눠
주기 위해 통통거리며 다니는 모습이
그의 상상속에 떠올랐다.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의 원주민들이 찌적거리며
돌아가는 축음기 주위에 웅크리고 들
러앉아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
께 복음을 듣는다.

그날 밤 스튜어트의 마음 속에 하
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에 대한 비전
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미 숙련된 기
술을 가지고 있던 스튜어트는 즉시
그의 공장 옥상을 복음음반선교회 호
주지부로 내놓았다. 책상 하나와 전
화한대, 전화전화부 이것이 전부였
다.

이곳에서 스튜어트 밀은 새로운 축
음기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당시 미전도 지역에는 전기
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GR이 보급한 복





음음반은 얼마지나지 않아 못쓰게 되고 말았다. 계속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기계적인 조작에 익숙하지 못한 현지 부족민들이 축음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었다.

원가 전기나 배터리없이도 소리가 나는, 그리고 조작이 간단하고 견고한 축음기가 필요했지만 이러한 축음기를 개발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재정이 요구되었다.

‘당시 크리스찬 인구의 5%인 호주에서 이러한 사역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을까?’

그러나 스튜어트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호주 정부가 세워진 바로 그해 말부터 축음기와 음성전달장치가 자체생산되기 시작했고 해상으로 운송되어 세계 여러 지역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작에 필요한 재정이 충당되기 시작했다.

1957년, 끊임없는 실패와 연구속에 마침내 최초로 미전도종족을 위한 수동식 축음기가 완성되었다. 그가 만든 수동식 축음기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부족이 구

원을 받았다. 스튜어트는 지금도 어떻게 미전도종족을 위해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것도 기존의 사용하던 수동식 축음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일반 카세트 녹음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Hand-heli generator를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또한 One-Page Bible이라는 미전도종족을 위한 쪽지성경도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간단하고 유치해보이지만 앞뒤로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함께 4가지 복음메세지가 있는 것이다. 가운데는 빈공간이 있어 각종 언어로 복사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스튜어트 밀! 그는 빌리그래함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그가 한국을 찾아온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를 83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미전도종족을 향한 새로운 장비와 헌신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니는 그의 닳아빠진 구두의 의미를 주님은 아신다.

그는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카세트를 구상하고 있다. 미전도지역 국가의 관세규정으로 인해 카세트 완제품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3단계로 분해해서 현지 부족민들이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조립형 카세트 재생기를 보급하려는 것이다. 그의 삶의 모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1953년에 호주LRI와 연결되어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상태이지요. 그 말은 제가 더이상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하루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속화할 수 있는나 하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일을 하느라 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83세의 스튜어트 밀! 그는 분명 한 사람의 평범한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찬 젊은 발명가 선교사임이 분명하다.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만든 One-page Bible을 소개하는 스튜어트





정아브라함 선교사는 순신대학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어문선교회의 선교훈련과정과 MTC 2기를 마친 후 여의도순복음교회 파송선교사로 지난 95년 7월 GR사역자로 파송되었다.

← Gospel message를 녹음하고 있는 정 선교사

“비록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죽일 수 없습니다.”

1995. 11월 24일

FRTC(Field Recordist Training center in Nepal)훈련생 5명, 훈련 강사인 Jon과 Clair부부, 그들의 딸 Brook(1살) 그리고 현지 리더인 Barnabas 등 모두 9명이 오늘 Field Trip을 2박 3일 예정으로 떠났다. 그사이 카트만두 시내에서 이론과 실습훈련을 가졌는데 네팔의 마을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니 많은 기대가 되는 여행이다.

나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렸다. 이 선교 일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드렸다. 새벽 6시 30분에 우리 일행 모두는 버스를 탔다. 버스는 꽤 큰 편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이 말은 좋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 나라로 치면 2인 좌석 좌석인데 이곳에는 3사람씩 앉아야 한다. 내 자리에 3사람이 앉으려고 하니 히프가 들어가지 않는다. 네팔인의 체형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까지는 버스로 8시간을 가야한다. 버스가 카트만두를 벗어나니 마치 대관령을 넘듯이 차가 곡예를 한다. 멀리에는 차창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눈덮인 장관이 드러난다. 오후 4시가 되어 D라는 곳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첫번째로 만난 사람이 전한 소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었다. 이 지역 주민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D 지역의 가정예배를 물세례를 주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응이 크리스찬 단체에 적대감

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를 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일행중의 한사람인 Barnabas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D 지역 근처에서 우리의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근처 Lodge(숙소)에 일단 짐을 풀었는데 일인당 500(400원)하는 방이다. 흙벽돌 집에 침대 4대가 있는데 천정을 보니 양철지붕 뿐이다. 군데군데 구멍이 나서 비만 오면 영락없이 비세례를 받아야 될 판이다. 침대(1인용 소형 침대) 4개에서 7명이 자야 한다. 우리는 D 지역의 마을을 둘러보았다. 힌두 신전을 중심으로 마을이 들어섰는데 강력한 영적싸움의 지대이다. 우리는 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장님인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집에 안내되어 그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11월 25일

좁은 침대위에 Sleeping Bag 속에 들어가 자면서 나는 침대에서 안떨어지기 위하여 꽤나 신경을 썼다. 무사히 잠을 잤고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쉼 여관방(움막집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음)에서 잠을 잔날로 기억되는 날이 지났다. 우리는 4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J라는 지역까지 갔다. 3시간 정도를 가서 7시 정도에 도착했다. 바로 우리가 가려는 다우타리 마을로 가는 입구에서 내린 것이다. 이쪽 산 정상에서 바라보니 저 밑으로 계곡이 보이고 그 계곡을 넘어 다우타리까지

가려면 저기 보이는 산의 정상까지 가야한다.(네팔의 산촌은 모두 산 정상에 위치한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5시간을 걸어서 다우타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중간에 나는 오른쪽 발에 근육 경련이 일어났었다. 일행이 함께 기도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래간만에 하는 산행이고, 이 사람들이 워낙 빨리 걸어 힘든 산행이었다. 이 산에 와서 지나온 길을 내려다 보니 아득히 저멀리 사라진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은혜를 얻곤 하였다.

다우타리 주민은 극히 폐쇄적이고 모두 다 힌두교를 믿는 전형적인 힌두마을이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네팔인의 전형적인 실체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훈련생 중에 네팔인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Language Information Form(LIF 언어정보조사서)를 작성하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러는 동안 이 20세기의 숨겨진 나라(Hidden Country) 네팔의 촌락의 이모저모를 사진에 담기도 했다.

오늘 하루종일 네팔식 라면 1개로 끼니를 때우고 우리가 묵는 장소에 가보니 흙담집 처마 밑이다. 어제 묵었던 움막집이 가장 쌀 곳으로 기록을 세웠는데 오늘 다시 기록을 켜다. 아무데도 우리를 재워줄 곳이 없다. 아무데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곳이 없다. 그런데 이곳 700여 가옥중에서 우리 일행을 허용하는 곳이 한군데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동네 유일의 크리스찬 집이다. 흙담집 처마 밑에 돛자리를 깔아 제법 훌륭한 침대가 된다.(?) 단지 이슬만 막아줄 뿐 흙바닥을 침대삼아 하늘을 이불삼아 Sleeping Bag 하나만 의지하고 잠을 자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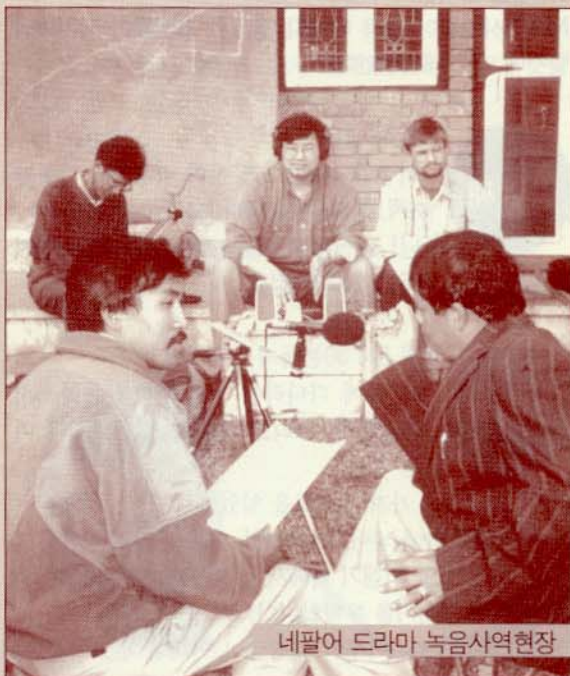
Jon과 Clair가 아무 불평없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태어난 지 한 돌도 안된 사랑하는 어린 딸 Brook를 돛자리 위에 누인다. 지금이 11월 말, 이곳이 비록 네팔이라지만 고산지대이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것이 한국의 늦가을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16년 경력의 선교사 Jon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Clair를 보고 선교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아기 예수를 마굿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신다.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를 저렇게 재우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아직 없는 것 같다.

나는 이 흑암의 마을에 어떻게 크리스찬 가정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들의 간증을 들었다. 나라 안이라는 젊은 친구가 치유불능의 병에 걸렸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당신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깨끗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된 이 가정은 마을 사람들은 핍박과 협박을 통해 마을에서 내쫓으려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정은 매주 교대로 교회를 다녀와서(5시간이나 가야하는 거리이다.)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매주 한 번씩(목요일마다)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어떻게 이곳에 사느냐고 우리가 묻자 그들은 대답한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죽일 수 없습니다.”

선교의 현장이 바로 이곳인 것이다.



네팔어 드라마 녹음사역현장



- 밸러리 데쿠치 -

한 녹음 선교사의 일기

1일째

오후 1시 45분에 자이레의 부카부에 도착.
믿어지지 않는군. 5년전 마지막으로 방문
했을 때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세관원들은 더 이상 봉급을 받지 않는 이유
로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
는 것이었다.
아이고! 입국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온 장비와 35개의
테이프 때문에 그들과 실갱이를 벌인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뒤져본다.
나는 가방을 닫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구!... 아무도 나를 마중 나온 것 같지 않군! 마을까
지 50Km는 걸어야 하는데... 재빨리 탈것을 찾아보는데
낯설어.
"도-와-주-세-요!!!"
휴, 주님 감사합니다.
MAF 사람들이 아직 떠나지 않아서 그네들이 자기네들
탈것에 나도 태워주었다.

2일째

전갈이 왔음.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비행기가 다음날
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아시죠. 제가 하루라도 일하
는 날을 늦출 여유가 없다는 걸요.

3일째

새벽 5시 30분까지 준비완료!
활주로에 다다라서 비행기에 타는데 3시
간 걸린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아침에 떠
나는 것이다.
아침! 멀미약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검은 비닐백 안에 넣어 놓았는데!
주님, 이 조그만 비행기 속에서 날 때 제발 복통이 안 일
어 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바라보니, 이투리 대정글이 거대한 부드러운 녹

색의 카펫트 같이 보인다.

주님, 만일 우리가 저기에 박치기라도 한다면 빠져 나갈
구멍이 없겠어요!

우리는 흙먼지로 뒤덮힌 활주로에 착륙했다.

완벽한 착지... 조종사 따봉!

즉시 우리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들었다.

"이 낯선 사람은 누구지? 이 여자는 무슨 부족이지?"

주님, 이곳은 지옥에 가장 가까운 곳이 틀림없군요.

너무 덥고 습도가 높아요!

나는 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이건 마치 거대한 사우나탕같은!

헉헉... 주님, 시원한 콜라가 어디 없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투리 정글 한 복판에 있는 것이
다. 콜라도 없고, 햄버거도, 그 맛있는 프렌치 프라이도
없다.

다만 있는 것은 풍부한 뱀과, 멧돼지와 침팬치와 원숭
이! 개네들이 다 가고 나면 대형 박쥐가 튀어나온다.

주여! 제발 제 혀바닥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4일째

나는 녹음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
다. 자, 시작하자. 난 여기에 2주만 머무
를 수 있을 뿐!

어라? 내 직감에는 녹음이 부드럽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준비시간이다. 교사들과 만나서 녹음을 좀더 그
들의 문화와 맞게 만들기 위해 정보를 좀 뽑아내고, 통
역자를 만나 무엇을 할건지 설명해야지.

오, 맙소사! 엉망진창이 되어 가잖아.

주님, 제 막사가 진흙으로 된 벽에다가 나뭇잎으로 된 지
붕이에요. 지붕의 구멍으로 줄줄 샅니다.

한밤중... 칼칼칼!

빗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에 진흙탕물이!

어디? 썩, 내 침대 바로 오른쪽이다!

매표사 내 얼굴 위에 퍼붓고 있다.
 짝! 바퀴벌레가 온 전신에 널렸다.
 내, 내 신발이 어디 있지. **광! 철벽 철벽.**

5일째

작업을 하면 할수록 문제투성이다.
 주님, 제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녹음하게 도와 주세요.

6일째

마을에 한 사람이 죽었다.
 장례식은 아프리카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작업을 중단해야 했다.
 몸에 열이 좀 있는 것 같다.
 주님 전 지금 말라리아로 비실거리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7일째

이젠 중요한 녹음 작업으로 접어든다.
 오후가 되면 녹음을 돕는 사람들의 머리가 꾸벅 꾸벅 내려가기 시작한다.
 날씨는 덥고 그들은 하루종일 일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 하십시오.”
 (이때 에너지 충전을 위해 내 가방에서 비장의 무기 사탕 봉지가 등장)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일을 잘 마치게 해 주셔서!
 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니 등이 아파다.
 좀 걸어야겠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날 따라다닌다.
 주님, 전 이제 사생활도 필요합니다!
 유일한 장소는 “쥬~”(화장실)뿐이다.
 불행하게도... 흐흐흐 앉을 수가 없다.
 덩그런 구멍뿐이다.
 주님, 이 밑에 받치는 나무 판자 하나라도 부서진다면...
 도와주세요.
 웃지마시라.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구. 이젠 전혀 웃을 일이 아니다.

8,9,10 일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점차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하심과 도움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의 중보기도도!
 언어 통역자는 지쳐있다.
 여러 시간 앉아 본 적도 없고, 게다가 집중을 하자니 말이다. 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용기를 얻는다.

“이봐요. 이젠 우리 부족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것들이예요!”
 우리가 마술, 도둑질, 간음, 뇌물에 대해서 녹음할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난 기도한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숲속의 ‘영들’을 무시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 ‘영들’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귀신들린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가끔 오싹하는 기운이 내 등을 타고 오를 때가 있었다.
 조용히 녹음하고 있던 어느날 갑자기 바깥의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다 보면서, 거기에 원숭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지막날

주님, 제가 비록 땀에 젖어 있고, 인내심 없고, 불평 많고 떠나기만을 고대했음에도 불구하고(슬프게도), 전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었구요, 그들의 매일의 고통과 두려움을 알게 되었어요.
 난 이들을 그리워 할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팀”의 일원이 되게 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시고,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화를 알게 해 주세요.
 그들이 그 ‘영들’ 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이 글을 쓴 벨러리 데쿠치는 케냐 LRI와 함께 현장녹음 선교사로 몇 년 동안 섬겨 왔다.



ARM 추천 및 신간소개

미전도 종족 선교

그들의 말로 듣게 하라

Faith by He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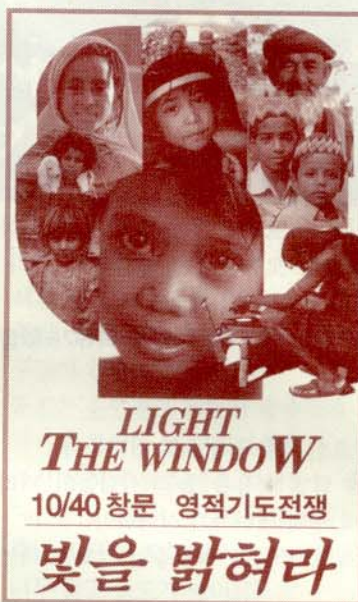


전기도 없이 건
전지도 없이, 스
파커도 없이 오직
나뭇가지 하나로
소리가 나는 축음
기! 이 축음기가
선교사의 발길이
달지 않는 아마존
과 아프리카와 아
시아의 미전도 족
속을 찾아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 예수전도단
- 4,000원

비디오

10/40 창문지역 중보기도를 통한
전략적 차원의 영적전쟁
빛을 밝혀라



10/40지역의
수천년동안 형성
된 사탄의 견고
한 진! - 갖가지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그리고 극
심한 빈곤과 영
적 속박!

이 영적요새는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영적실체를 파
헤치고 영적대결
의 원칙을 밝힌
다.

- ARM 제작
- 정 본 / 28분
- 축소본 / 14분

조이 리더호프의 믿음과 순종의 파란만장한 모험의
일대기!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ARM(02-408-6959)으로 연락
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정성준 간사)



우울증과 거절감, 자기학대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상처입
은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

현대인들은 심각한 정서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대중
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많다. 그 주된 이유는 어린 시절 그가 속했던
환경과 가족으로부터 미망히 공급받아야 할 격려와 수용,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지적, 육적으로 어른이 된 후에도 이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며 항상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내면의 고통을 당한다.

Ⅰ. 자기신분회복, Ⅱ. 자기성품회복, Ⅲ. 자기가능성회복의 3부로 나뉘어
져 있는 이 오디오 테이프는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과 가능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홍순관 씨의 <새의
날개>를 삽입곡으로 하여 ARM에서 제작한 <위축된 자아의 회복>은 불신자
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며 내면치유를 필요로 하
는 크리스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복음음반선교회(ARM)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한 지체로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
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증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 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직접 증거하는데 장애가 있는 지역
을 대상으로 그들의 말로 녹음된 복음음반을 제작, 배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명이 주는 각종 첨단 장비를 사용한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